우암학원 창학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128호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음력 10월 27일

SD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민주당 직접 챙긴다

김민석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에너지 고속도로·신산업 협력 초점
집권플랜 중요 국정과제 ‘지방 부활’
광주시, 무안 홍보 등 이전노력 중단
姜시장 “정부·정치권으로 논의 확대”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뛰어 들었다. 민주당은 공항 통합 이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핵심 어젠다 3가지를 직접 챙기며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도 강기정 시장의 ‘범정부협의체 재가동’ 요청에 화답해 12월 중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광주시는 기존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노력을 일단 멈추고 민주당의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상생발전 TF(가칭)를 구성해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권교체와 집권플랜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방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을 지방 부활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구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생발전 TF는) 광주 민·군 공항 통합이전 때문에 촉발된 것은 맞다. 강기정 시장께서 요청한 ‘민간·군공항 당차원 논의’를 확대한 것”이라면서 “함께 머리를 맞댈 문제들이 많은 만큼 공항 통합 이전 뿐 아니라 상황을 더 크게 보자는 데 당 내부의 의견이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상생발전 TF는 광주·전남의 핵심 어젠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첫번째는 당과 이재명 대표가 역점으로 제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광주·전남이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광주·전남의 행정과 신산업 협력 등을 장기·중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민간·군공항 이전을 큰 틀에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생TF는 당 대표와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포함돼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연구도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화구조 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바로 광주와 전남이 이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지역”이라며 “광주를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 등 광주의 우수 시책이 많다. 이를 국가정책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도 생각 중”이라면서 “대표적으로 AI(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기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광주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공항 문제를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TF 의제로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지난 8월 국회 ‘광주의 날’ 이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강기정 시장의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김 최고위원에 이어 곧바로 기자들을 만난 강 시장은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을 넘어 또 다른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들을 잠정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앞으로 무안군민과의 소통·홍보 창구였던 ‘열린대화방 운영’과 12월 초 예정했던 ‘공항도시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각각 중지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틀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된 만큼 ‘12월 데드라인’도 철회했다.

강 시장은 “민주당에 ‘군공항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당 차원에서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상생발전TF’ 구성으로 결정한 것 같다. 또 국무조정실은 12월 중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민주당·중앙정부로까지 논의의 틀이 확대된 만큼 이 틀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앞서 지난 9월부터 공항 관련 3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중앙정부에는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민주당에서는 ‘광주·전남상생발전TF(전담팀)’ 구성을,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KIA 김도영, 2024 KBO 리그 ‘최고의 별’ 우뚝

기자단 투표 득표율 94.05%
장타율상·득점상까지 겹경사
박찬호 유격수 수비상 2연패
네일·정해영도 타이틀 홀더로

프로 데뷔 3년 차에 한국 야구를 호령하며 ‘슈퍼스타’로 떠오른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올해 KBO 리그에서 가장 빛난 별이 됐다. 기자단 투표에서 득표율 94.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우수선수상(MVP)을 거머쥐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도영은 이날 시상식의 피날레인 MVP에 등극했다. 그는 시즌 종료 직후 진행된 한국야구기자회 회원사 및 각 지역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 투표에서 유효표 101표 중 95표(득표율 94.05%)를 쓸어 담았다. 올 시즌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하는 등 역대급 시즌을 보낸 김도영은 장타율상과 득점상에 이어 MVP까지 거머쥐며 이번 시상식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2면에 계속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MVP를 수상한 KIA 김도영이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